

문화특집

김제 교월동, 지평선축제 관광객 위한 허수아비 제작 작업 한창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한)에서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허수아비 제작 작업에 한창이다.

교월동은 허수아비 테마로 몇회에 걸쳐 입석출다리기를 재현하여 큰 호응을 얻어내기도 하였으며, 작년에는 해남달님 전래동화를 재현하여 김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 완성된 차전놀이 허수아비는 9월 9일까지 교월동 입석전승관앞에 설치·전시하여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과 지평선축제기간 벽골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강해남 사무장은 "차전놀이는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입석출다리기와 의미가 비슷하여 올해 허수아비 테마로 정했으며, 현대인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이번 기회에 선보이고 싶었다."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폭염을 맞으며 열심히 제작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협 부녀회, 김치나눔 행사

김제농협 부녀회(회장 박순남)는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갖고 지역의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170여명의 김치를 전달하였다. 이 행사는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이 주관하고 김제농협 부녀회 임원 및 마을 부녀회장의 자원봉사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가위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는 김제농협과 김제농협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으로 매년 추석을 앞두고 부녀회에서 직접 김치를 담아 명절에도 소외받지 쉬운 독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수급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20여명의 부녀회 임원 및 마을부녀회장이 김치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배추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하여 더 큰 호응을 받았다.

고성곤 조합장은 한가위 사랑의 김치나눔으로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나눔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원봉사를 해준 부녀회 임원과 부녀회장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훈훈한 나눔이 넘치는 복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금연거리 지정·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은 2016년 9월 중 서당남길 박약국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사거리까지 약 378.9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한다.

해당구간은 초등학교, 음식점 등 의료판매업소 등이 있으며 미성년자 및 일반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흡연자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연구역으로 선정했다.

김제시보건소는 금연거리로 시범 운영하는 만큼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지정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금연지도원 및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등 금연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시보건소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도시로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홍보채널 다각화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평선축제 기관연계 홍보 '톡톡'

김제시, 관광공사·도로공사 등과 축제 홍보관 운영·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오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홍보채널 다각화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부 3.0」의 기관간 협업을 축제 홍보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의 김제지평선축제가 있기까지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 완벽한 축제장 조성 등과 함께 대외적인 홍보채널 다각화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사

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나라 여행백과 및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축제 홍보관 운영 해외 언론사 팸투어, 해외지사 협업을 통한 백제문화권 여행 상품 개발, 전라권 공동 홍보관 운영에 이어 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까지 김제지평선축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게이트 홍보역자 게시, 휴게소 내 DID 홍보영상 송출, 휴게소 내 축제홍보 리플릿 게시)를 활용한 직·간접적 홍보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김제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내고향 갤러리(백라이트패널) 및 지역홍보센터 등 서울 주요거점 홍보, 전국 23개 지자체 보유 전광판 교차 홍보 등으로 전국적 홍보망을 통해 김제지평선축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기결에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축제 홍보가 큰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찾아오신 손님들께 새로운 즐거움과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향토음식 계승·보급에 '온 힘'

우리음식연구회, 지역 농산물 특성 활용해 소비 확대 앞장

우리음식연구회(회장 나경숙, 이하 음식연구회)가 정읍 향토음식 계승과 보급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식연구회는 지역의 식(食)문화 리더의 능력 함양을 위해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식교육과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27명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나경숙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음식연구회는 정읍의 고유한 농산물과 특성

을 활용한 향토음식 계승과 보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식문화 계승과 다양한 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매월 정기모임 시 회원 각자가 보유한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계절별 식재료 활용 방법을 보급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쌀 수임가량과 소비량 감소에 대응,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 이용 음식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자체교육 시 만든 쌀도넛과 샌드위치, 삼각김밥을 아동보

육아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음식연구회는 지난해에는 회원들의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해 약선요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 식문화의 이해를 높였고 일부 회원은 식생활 체험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7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탈곡살빵과 떡?한과, 요리배우는 남자, 삼시세끼 김치냉장 등 4과정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트렌드에 맞는 건강한 쌀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 식재료 이용 음식 보급, 그리고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맞아 재해사업장·배수펌프장 등 안전점검

정읍시가 최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과 배수펌프장을 현장 점검하고 막바지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공사 중인 태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과 대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또 가을철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태인배수펌프장과 연지배수펌프장, 연지우수저류시설의 펌프, 수문 등 기계설비의 시험 가

동과 함께 수로와 유수지 상태를 점검, 상시 가동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신태인 배수펌프장과 연지 배수펌프장 연지 우수저류조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근무조 운영과 매뉴얼을 재검토했고, 오는 9일까지 주변 환경정비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재난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하고 재난 없는 정읍시 건

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태인면천소재지 일원 관로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까지 완료한 계획이다.

대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대실마을 일원 관로 0.66km를 정비하고 우수 저류조(V=6,600m<sup>3</sup>)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을무·배추 최저가격 보장

정읍시가 가을 무·배추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나선다.

시는 201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으

로 올해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 2개 품목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농협 등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천㎡~1만㎡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농협 등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백서발간 중간보고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의 10년 발자취를 기록·보존하는 사업이 추진돼 이력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김제사랑 장학재단 백서발간 중간보고회』에서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동기에 대한 시간 공간적 비교, 장학재단 추진과정 및 성과 분석, 장학기금 확충방안, 향후 장학사업 발전방안 및 비전 등을 제시하였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짧은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장학기금인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장학

기금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308명, 6억4천만원), 김제사랑장학금(1,208명, 14억4천4백만원),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2,441명)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수범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진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오늘날까지의 성과보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백서발간 용역을 통해 지난 10년간 장학재단의 발자취를 정리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5대 단체와 부안군산림조합이 MOU를 체결했다

부안군산림조합 - 5개 단체 업무협약

농촌지도사회·생활개선회 등 산림조합 업무 활성화 위해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부안군농촌지도사회(회장 백문옥), 부안군생활개선회(회장 김정례), 한국경영인연합회(지회장 박연석), 부안군여성농업인연합회(지회장 김현순)와 상호 교류협력 사업개발 및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5일 부안군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부안군 산림조합은

각 협력단체의 발전을 위해 각 단체의 소득사업지원 및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적극협력기로하고 각 단체는 부안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산림사업 등 부안군 산림조합의 업무에 적극협력기로해 각 단체의 상호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문화적 교류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군의회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계획, 하서, 변산, 위도 선거구 의원으로 당선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벌인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지역의 어려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신뢰받는 소통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부안군 계획 하서, 변산 위도 선거구 의원인 부안 군의회 이한수 의원이 그 주인공. 이 의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부안군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사를 충실히 대변하려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현장 의정의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확보한 국가예산이 불용처치돼 집행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꼬집는 한편,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 문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 등 집행부의 미진한 행정대응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등 연이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도 했다. 또 매년 극심한 물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하서면 장신지구는 여름 농사철이면 가뭄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쌓여있을때 이 의원은 한해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수자원공사 부안관리단(단장 김현철),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장신제·현지제 저수율을 민수위로 재워왔다.

이로써 인근 35ha 농경지 70여 농가의 타들어가는 영농기름 갈증을 해소하였으며, 벼농사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수잉기 때 소중한 물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만금 인접 계획간척지에 연이은 양돈장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가고약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